

# 성도의변

10<sup>1996</sup>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특별 부록 : 어린이란





**표지 설명:**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은 가나에 교회가 세워지기 십사 년 전부터 물문경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했으며 복음 선교사를 위해 길을 준비했다. 그가 불을 밝히도록 도왔던 그 불꽃은 지금 두 개의 스테이크와 다섯 개의 지방부에 있는 만 명 이상의 회원들의 삶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뒤 표지:** 가나 이크라 스테이크의 테마 워드 합창단은 성찬식 모임에서 영을 고조시키도록 돕는 일을 기뻐한다. "가나: 신앙의 가족", 34쪽 참조 (표지 사진 촬영: 돈 엘 실러)

**어린이란 표지 설명:**

예루살렘에서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음성들을 들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니파이삼서 1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14쪽의 "물문경 이야기"를 참조한다.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서반구에 나타난 그리스도)

## 일반

대관상단 메시지: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  
 이블린을 위한 책 테레사 울프 ..... 16  
 약을 막아주는 방패 클라이트 제이 윌리엄스 ..... 18  
 기적같은 개종 저메인 에밀리 오키타라-케이 ..... 26  
 날이 새기 전에 리토 비네즈 레가스피 ..... 28  
 가나: 신앙의 가족 돈 엘 실러 ..... 34

## 청소년란

주머니칼 ..... 8  
 좋은 영향을 준 편지 제너 브라이너 ..... 11  
 가족 모두가 로리 리브시 ..... 12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 케이시 널과 이룬 랜달 볼러 ..... 30  
 우리는... 믿는다 더글러스 제이 버미르 ..... 46

##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 1  
 방문 교육 메시지: 인내로 경주함 ..... 25  
 물문 메시지:  
 회개는 더러움을 깨끗히 씻어주는 강한 비누입니다 ..... 33

## 어린이란 (별책 부록)

친구가 친구에게: 한인상 장로 ..... 2  
 함께 나누는 시간: 항상 정직하고 진실함 캐런 애쉬튼 ..... 4  
 어린 친구를 위하여: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리디아 더블류 워델 ..... 6  
 생각해 보는 문제 ..... 7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로라 에스 쇼트리지 ..... 8  
 이야기: 홀로 걷기 앤 크라우더 헤릭 ..... 10  
 심심풀이 ..... 13  
 물문경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관한 표적들 ..... 1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어 파우스트

심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톨 페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밥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리드, 조셉 비 워스라,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랑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다, 앨 라이오벌 캔들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기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엔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라우드  
편집/제작부장: 메리앤 마틴데일  
제작보조: 베스 테일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벅 캄펜  
디자인: 새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신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리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67호, 제 33권, 제 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86  
발행일: 1996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윈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October,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6990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말일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 및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대만,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8,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헝가리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 기이한 도구

저는 교회에 들어온 지 38년이 된 회원으로서, 매달 나오는 테르 스테른(독일어 판)을 즐겨 읽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도구를 이용하여 가정 복음 교육을 준비합니다. 대관장단의 메시지를 꼼꼼하게 연구하여 얘기의 주제를 방문 가정에 맞게 고칩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 아이들을 위한 기사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복음도 가르치고 나이에 맞는 활동도 합니다.

테르 스테른은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저의 구두 수선 가게에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별책 부록인 어린이란을 줍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가족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이 잡지를 읽으면 간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클트 브루너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

아라우 지부

### 주님으로부터 선택 받음

1965년 7월호에 실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연차 대회 말씀 가운데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다가 대관장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선택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친구이자 상담자이며, 교사이고 선교사입니다. 리아호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 및 전세계의 형제 자매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매달 리아호나를 읽는 것은 주님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리디아 발베르데

페루 리마 마그달레나 스테이크  
볼리바르 와드

### 경전 연구를 통해 도움을 받음

제가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된 후, 경전을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져 갔습니다. 구세주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지만, 경전의 대부분 구절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1996년 2월호 리아호나에서 두 기사, 즉 "실험"과 "효과적인 경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들 기사에서 설명한 방법을 적용하였다니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간을 내어 경전을 공부하고 인내와 신앙으로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첼마라가이

필리핀 솔소곤 지방부

솔소곤 제2지부

### 주님의 가르침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제가 읽은 잡지를 통해서 지금의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처럼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매달 첫째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이 특별한 잡지를 보다 자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리아호나를 책가방에 넣고 갑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이용하여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매년 리아호나를 구독하여 읽음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디아 아라셀리 소토 테라사스

멕시코 콰이마스 스테이크

미라마르 와드







#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최** 근 세계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이 연합 통신을 통해 통신 매체에 연결이 되고, 그것은 다시 각 대륙에 있는 가정에 보도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간략합니다. 그 제목들은 살인, 강간, 강도, 성 희롱, 부정, 사기, 뇌물 수수 등입니다. 그 중 몇 가지 제목을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죽인 뒤 자살한 남자”, “어린이가 치한을 확인함”, “수백만불의 사기 횡령이 폭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음” 이러한 것은 한없이 계속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정경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2~4)



정직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개별적인 권유가 참으로 친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평지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3:12 참조) 우리는 노아 시대를 통해 가르쳐진 교훈을 배울 수 없습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습니까?]”(예레미야 8:22 참조) 이 세상의 늪으로부터 의로움의 고지로 인도하고 이끄는 문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개별적인 권유가 참으로 친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 그 문에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의 이름을 “사랑이라 불리는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 오는 촉매입니다. 사랑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향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잡초처럼 자라나거나 빗물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토록 컸습니다.

애뜻하고 감동적인 작별 모임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권고하시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한복음 14:21)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는 가르침은 원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사랑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경전의 심오한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시에는 쉽게 반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존이 말했다.  
그리고는 할 일을 잊고서  
모자를 쓰고 밖으로 놀러 나갔다.  
엄마는 물을 길고 나무를 날라야 했다.

“엄마, 사랑해요.” 예쁜 벨이 말했다.  
“말할 수 없이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는 반나절 동안이나 칭얼대며 뽀로통했다.  
벨이 놀러 나가자 엄마는 기뻐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팬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학교에 안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고는 아기를 달래 잠재워 주었다.  
그런 다음 조용히 걸어나가 비를 들고는  
마루를 쓸고 방을 정돈했다.  
팬은 하루 종일 바쁘고 행복했다.  
어린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되어 행복했다.

세 아이는 잠자러 가면서  
“엄마, 사랑해요.”하고 다시 말했다.  
세 아이 중 누가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고  
엄마는 생각할까?  
(조이 앨리슨, “누가 가장 사랑할까?”)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과 예의와 공경은 사랑의 상징이며 의로운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가장은 물론경의 야곱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 저들의 흐느낌이 하나님께 우리러 너희를 고발하니”(야곱서 2:35)

니파이삼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니파이삼서 11:28~30)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쪽)

고전적인 음악 작품인 카멜롯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경고



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더왕과 랜슬롯 그리고 기네비에  
에 관한 그 유명한 삼각 관계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후, 아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걱정으로 꿈을 해쳐서는 안  
되오.”

그 작품에는 또한 아더왕이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며 말  
한 또 다른 진리가 나옵니다. “폭력은 힘이 아니며 동정은  
약함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나 도  
움이 요구될 때, 또는 구조를 바랄 때 다음과 같이 귀에 익  
은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 무  
언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것이 나로부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터 시작되게 하소서.”라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한 어린 소  
년이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방랑자를 보고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베개를 가져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머리 밑  
에 베어 주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 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접의 말이 들려 왔을  
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저는 사랑에 찬 보살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집이 없는 자를 재우는 사람들  
을 찬양합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주님은  
그러한 봉사에 무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격려해 주고자 하는 소망,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너그러움은 사랑이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러한 사랑을 고  
취시켜 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많이 돕고 위로하  
며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소유를 대가없이 베풀었던 한 친  
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  
다. 그 분은 건장한 아들들과 사랑스러운 딸들에게 금전상으  
로는 아무런 유산도 남겨 주지 못했으나, 오히려 모범과 희  
생과 순종에 대한 풍요로운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정례식  
을 치르고 난 후, 장성한 가족들은 어머니가 남긴 빈약한 유  
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루이스는 어떤 쪽지와 열쇠를 발견하  
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침실 모퉁  
이의 옷장 맨 밑 서랍 속에 작은 상자가 있다. 그 속에는 나  
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단다. 이것은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란다.” 다른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물쇠로 잠궈  
놓으실 만큼 귀중한 것이 있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누  
이 한 명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로 어머  
니에게는 값진 물건이 별로 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랍 속에 있던 상자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증  
서도 아니고, 귀중한 반지나 값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루이  
스는 상자 속에서 빛 바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여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  
하는 남편과 1891년 12월 1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주  
님의 집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되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들은 이름과 출생일이 적힌 각 자



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손으로 만든 조잡한 발렌타인 카드를 집어 들었습니다. 루이스는 어린애다운 필체의 그 미숙한 글씨가 자신의 글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60년 전에 자기가 직접 썼던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들의 마음에 애정이 솟아났으며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눈은 촉촉히 젖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물은 영원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 힘은 "사랑해요"라는 토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지표가 되는 철학으로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아무도 낙오하지 않는다. 나에게서는 모든 학생이 성공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퇴직 간부인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정원회 지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에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직업이 없는 열두 사람에게 영구적인 직장을 갖도록 도와주었

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기쁜 적은 없었습니다." 체구가 작아서 우리가 애칭으로 "리틀 에드"라고 부르는 그가 그날 눈을 반짝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는 몹시 커 보였습니다. 그는 궁핍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역센 양계 도매상인 어떤 사람은 통닭구이용 닭 스물네 마리를 사가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부되신 분들에게 그 닭들을 가져 가시려는거죠?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양계장에는 닭이 더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에 유타 주 축구 우승을 놓고 물간 고등학교가 밀라드 고등학교와 경기를 벌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물간 팀의 코우치 존 스미스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기는 여러분 생애에서 무척 중요한 경기이다. 지면 평생 후회할 것이고, 이기면 평생 기억할 것이다. 동작 하나 하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하기 바란다."

그가 애칭으로 수석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그의 아내는 문 뒤에서 남편이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경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난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 경기에 우승하기를 바라는 거야." 경기에 질 것 같던 물간 고등학교는 이겨서 주 우승 팀이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는 안됩니다.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때에 저는 소년 시절의 일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열한 살 때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회장이었던 멜리사 자매님은 나이들고 보기 좋은 희색 빛 머리를

루이스는 상자 속에서 빛 바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들은 이름과 출생일이 적힌 각 자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손으로 만든 조잡한 발렌타인 카드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시간에 멜리사 자매님은 나에게 잠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텅빈 예배당에 둘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난 초등학교 개회 순서 때 야단 법석을 떠는 소년들을 도무지 조용하게 하지 못할 것 같구나. 토미야, 날 좀 도와주겠니?”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건에 관한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 제게는 이상했지만 멜리사 자매님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근원이었던 저에게 왔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구십대가 되신 훌륭한 멜리사 자매님은 솔트레이크시티 서북부의 양로원에 계십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저의 사랑하는 초등학교 회장님을 방문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자동차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천사 찬송하기를”(찬송가, 133장)을 들으면서 저는 오랜 옛날에 박사들이 방문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 갔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소망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멜리사 자매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포크를 놀리며, 음식이 담긴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인자하면서도 공허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멜리사 자매님에게 포크로 음식을 집어 드리면서 초등학교 역원으로 그녀가 소년 소녀들에게 봉사했던 것에 관해 줄곧 혼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였으며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양로원에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의아하다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가족들도 못알아보는걸요. 이곳에 온 뒤로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대화도 끝났습니다. 저는 떠나려고 일어서서 그녀의 힘없는 손을 잡고 주름졌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멜리사 자매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지. 토미 몬슨이야. 내가 가르친 초등학교 아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구.” 그녀는 내 손에다 사랑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잡고 있

던 우리의 손을 적셨습니다. 그 날, 그 손은 하늘에 의해 성결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밖에는 하늘이 몹시도 푸르렀습니다. 대기는 차가웠습니다. 깨어질듯이 차가웠습니다. 눈은 수정처럼 하얗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토록 완전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26~27)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고요한 밤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사악한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맞이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가, 136장)

놀라운 은사가 내려오고 하늘의 축복이 주어졌으니, 사랑이라는 관문을 통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으며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

2.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관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이며 치유해 주는 유향이기 때문이다.

3. 사랑은 그것의 대가를 지니고 있다. 사랑에 찬 생활을 하는 가정은 불화와 다툼으로부터 돌아선다. 사랑에 찬 생활은 폭력을 멀리하며 걱정으로 인해 꿈을 해치는 대신 자비와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한다.

4. 사랑에 찬 생활을 하는 가정은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



# 주머니칼

필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음.

**주**머니칼은 언제나 벽장 안 선반에 매어 놓은 줄에 매달려 있었다. 때때로 나는 벽장 바닥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몸을 구부릴 때, 이 주머니칼에 머리를 부딪치곤 했다. 야영을 하거나 빵을 자를 때 몇 차례 이 칼을 시영힐 뻔했었지만 감히 그러지는 못했다.

나는 전부터 이런 칼을 가졌으면 하고 꿈꾸어 왔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크기였고 칼자루가 시슴뿔로 된 것이었다. 그 칼은 한번도 쓰이지도 않은 채 시계의 추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나는 단지 몇 차례, 칼집을 열고 칼날과 부속품을 하나씩 펴 보았을 뿐이다. 그 칼은 우루과이의 기후 속에서 이미 녹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그 칼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것을 손에 쥘 때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가 이 칼을 사용할 경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칼은 그 친구의 것이었다. 내가 그의 것을 훔쳤던 것이다.

우리 지부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잠시 혼잡해 있는 틈을 타 내가 껌짜기 훔친 것이었다. 애리얼은 그때 그의 칼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그 칼은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었다.

그 후 2년 동안, 그 칼은 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었다. 이 쓰디쓴 경험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주머니칼에 한해서는, 나의 마음이 우유부단했다. 그 칼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려 했으나 마음이 오락가락 했다.

그런데 나에겐 그 주머니칼에 대해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리 와드에서 제사 정원희와 월계반이 협동하여 노변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변의 모임은 어느

일요일 오후에 열기로 하였고 제사들은 복음 원리에서 한 가지에 초점을 두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선정한 복음 원리는 회개였다. 우리는 죄의 회개와 관련된 각 단계, 즉 그릇된 일을 했음을 깨달음, 죄스럽게 생각함, 고백, 보상,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함 등을 한 단계씩 맡아 이에 대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난처하게도, 나는 보상이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다.

그 즉시 주머니칼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했는가? 우루과이에서는 교회 회원들과 교제할 기회가 너무 적어 나로서는 노변의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주머니칼을 훔친 탓으로 지독한 죄의식이 무거운 짐처럼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회개와 보상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나는 벽장에 매어 놓은 줄에서 주머니칼을 떼냈다. 이 칼을 새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해 보았다. 약간의 세제에 윤활유를 섞어 칼을 구석구석 문질렀다. 내가 일하던 직장의 한 기능공한테서 조언을 받아 솔벤트를 사용하여 세척도 해보았다. 그러나 칼에 슨 녹은 이미 금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변의 모임이 있었던 일요일, 나는 교회에서 친구 애리얼에게 한 이야기가 있으니 다른 방으로 가자고 하자. 애리얼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왔다.

“나한테만 얘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데?” 애리얼이 물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뭐야?”







"너한테서 훔친 칼이야."

"네가? 너한테서? 그럴리가!"

"정말이야. 너한테서 훔친 거야."

"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서 찾았니?"

그는 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훔친 내  
막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마친 나는 에리얼에게  
"에리얼, 나를 용서해 주겠니? 난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해!"하고 물었다.

에리얼은 나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나도 그를 안았다. 우  
리는 함께 울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친구야. 용  
서하고 말고." 우리는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한번 서로 안았  
다. 그리고 나서 그 방에서 나왔다. 그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들의 발표는 참으로 훌륭했다! 그 신선한 기  
분은 얼마나 감미로웠던가! 나는 그때만큼 큰 행복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





**과**거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비대한 몸매며, 헝클어진 머리 등 그날의 나의 추한 모습에 대해 늘 친구들에게 투덜거리곤 하였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쳐지게 되었다.

나에게 홀리라고 하는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 홀리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으며 그녀가 옆에 있기만 해도 재미있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방과 후 나에게 쪽지를 주었다. 봉투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물론 나는 호기심이 커져 금방이라도 뜯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찬찬히 잘 읽어보기 위해 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기로 마음 먹었다.

이 쪽지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녀가 아주 나쁜 말을 썼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쪽지를 펴 보았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즉 나는 좋은 사람이며,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홀리는 그녀가 내게서 본 좋은 점들을 하나 하나 차례로 지적해 주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내가 어째서 이런 특성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홀리가 그때 쪽지로 나의 좋은 점들을 알려 준 것은 내 자신을 좋은 시각으로 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믿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언제나 사랑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만을 보시지 않고 장점도 보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또한 친구 홀리한테서 받은 쪽지 덕분에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좋은 영향을 준 편지

재너 브라이너











# 가족 모두가

## 로리 리브시

사진 촬영: 로리 리브시, 리자드 콜니  
 영 가족의 승낙을 받아 게재함.

**윙**운 타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1984년 9월의 어느 따듯했던 밤을 잊지 못한다. 윙 가족은 위 우 옛 하우스 21층에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은 정부 주택 수급 기획의 일환으로 홍콩 신계의 투엔 문 지역에 지어진 것이다. 그날 저녁, 벨레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15살된 윙 운 타이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흰 와이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흥미로운 검은 이름표를 단 낯선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들은 열린 현관 문을 가로막는 굳게 닫힌 철문 사이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던 벨레는 그들에게 한 시간 후에 다시 올 것을 부탁했다.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무엇이 참된 종교인지 알고 싶었어요. 요셉 스미스가 바라던 것을 저 또한 원하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 진정 알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며 벨레는 그 당시를 회상한다.

선교사들이 다시 왔을 때, 벨레는 정중하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메시지를 전한 후 선교사들은 벨레에게 물문경을 주

면서 읽으라고 권고하고, 기도를 한 후에 떠났다. 모임은 단순했지만 벨레를 감동하게 했다.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가슴 속에 비할 데 없이 훌륭하고 매우 독특한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 달 후, 벨레는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윙 홍 수엔과 윙 리웅 난 호 슬하에 둘째로 태어난 벨레는 그녀의 삶에 지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그 작고 평이한 발단에서 비롯되어, 엄마와 아빠는 물론 윙 씨 여덟 자녀 중 일곱이 교회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벨레는 홍콩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리고 벨레의 두 여동생, 안젤라와 메이도 또한 홍콩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벨레가 가족에게 보인 모범은 이제 는 십대가 된 람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막내 여동생 윙 초 우 호우와 남동



왼 쪽: 침례를 받은 후,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벨레  
 왼쪽 위: 벨레 (앞줄 가운데)와 그녀의 자매들인 앤진스 (왼쪽), 람보 그리고 맨디 (오른쪽)  
 오른쪽 위: 벨레의 남동생, 시몬 그리고 여동생 람보



생인 윙 와아 카안(시몬)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1992년에 침례를 받은 시몬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회원이 되기 전에 벨레를 언제나 지켜 보았어요.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일요일이면 언제나 일어나 교회에 갔지요. 벨레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우리 가족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어요.”

수년 전에 아주 독특한 영어 이름을 갖게 된 람보는 언니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에 힘입어 자신이 개종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 비록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주 일요일에 벨레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찬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전혀 예기치 않던 결과를 가져왔다.

람보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수많은 와드 회원들은 저를 보곤 회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은 아직 제 자신이 구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과 토론 과정에 있는 구도자들과 우정 증진자가 되기를 부탁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간증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마침내 람보가 1990년에 침례 받았을 때, 그녀는 벨레와 함께 복음의 원리들을 시몬을 비롯한 맨디, 메이, 안젤라, 아그네스 등의 언니들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서 다른 구도자와 우정 증진을 “공식적으로” 계속했다. “어린 아이였을 때, 저는 장난

치며 놀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다운 간증을 갖게 되었고 제가 가진 간증을 나누고 싶어 졌어요.”

람보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첫번째 사람은 그녀의 언니인 아그네스였다. 그녀는 아그네스에게 교회에 오기를 권유했다. 람보보다 두 살이 더 많은 아그네스는 이렇게 그때 일을 회상한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몹시 지루함을 느꼈어요.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은 좋았지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람보는 제가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했어요. 벨레 언니의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교회를 위한 수많은 희생을 보고, 또한 람보에게서 나타나는 교회의 영향력을 보면서 마침내 저는 교회를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하였어요.”

람보는 또한 시몬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몬이 침례를 받는 결심을 하도록 도왔다.

그렇게 복음 나누기가 계속되었다. 두 명의 선교사가 벨레에게 복음을 전했다. 벨레가 교회에 들어와 람보와 우정 증진을 시작했다. 람보가 침례를 받고 아그네스와 시몬에게 복음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고, 그 뒤 만딸인 맨디 그리고 메이, 안젤라, 마침내 그들의 부모님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

시몬은 자신이 진지하게 복음을 알고자 찾기 시작하던 그 무렵을 돌이켜 회상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한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으

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몬은 언제나 일요일에 휴식과 오락의 시간을 가졌다. 자고 일어나면 대개 친구들과 함께 공을 쳤다. 요즈음 시몬의 친구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에게 축구하자는 말조차 건네지 않는다. “저는 이미 그들에게 안식일에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들은 왜 제가 하지 않는지 그 대신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해 줍니다.”라고 시몬은 말하고 있다. 시몬은 일요일에 보통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경전을 읽는다. “저는 물론경에서 특히 리하이와 그가 가졌던 신앙에 대하여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자신의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읽는 것이 저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벨레는 복음이 그녀의 가족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칭찬도 받기를 거절한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 자신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참으로 크게 축복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가족들은 벨레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일 밤 그들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벨레의 복음 나누기의 산 증거를 본다. □



위 쪽: 영 형제와 자매. 오른쪽의 딸  
 아그네스(오른쪽)는 "벨레 언니의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교회를 위한 수많은 희생을  
 보고 저는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래 쪽: 벨레의 모범 때문에 영 형제와 자매  
 그리고 여덟 자녀 중 일곱 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림: 김민 미숙



# 이블린을 위한 책

테레사 울프

**내**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이블린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심각한 가정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 편지로 알려 왔다. 우리는 그녀의 불행한 처지와 그녀를 도울 수 없는 무력함에 대해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시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 피터와 같이 성전에 나가 영감을 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마침내 성령으로부터 응답이 왔다. 그것은 물론경에 관한 글과 나의 간증을 전하는 글을 써서 이 편지를 물론경과 함께 이블린에게 보내고 그녀의 집으로 선교사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피터는 선교사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에게 대한 주님의 요망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날 편지를 써서 물론경과 함께 우편으로 부쳤다.

며칠이 지났다. 이블린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초조하기 시작했다. 이블린의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닌가. 그녀가 내 편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이 두려워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전화해 보도록 부탁했다. 통화 중 이블린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나의 편지가 이블린에게 도착된 날은 그녀에게 유난히 불쾌한 날이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그녀를 압박하여 짓누르는 듯했다. 텔레비전을 켜 불행한 사건 프로나 자살 프로를 보아도 그녀의 정신적 불안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의 아들이 점심을 먹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이 나의 편지가 든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블린이 편지를 읽어 나가는 동안 성령이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이블린은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녀를 누군가가 와서 도와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편지를 받아 보 고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이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이블린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평안의 느낌이 그녀를 압도 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의 편지에 어떻게 회신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물론경을 매일같이 공부할 것을 권고해 주었다. 이블린은 그후 계속 물론경을 공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이블린이 거주하는 도시의 교회 지도자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집으로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이블린은 스스로 물론경을 공부하는 한편, 훌륭한 부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선교사의 복음 토론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내면적인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블린의 행복은 넘쳐 흘렀고 그녀의 가족들의 생활은 그 영향을 받았다. 물론 이블린의 일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적 생활은 일변했다. 그리스도를 생활의 중심으로 하여 그녀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남편은 자신이 여동생에게 침례와 확인 의식을 줄 기회를 가질 날을 보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이에게 귀중한 선물을 전해 준 것은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경이 그 해결책이 되었다. □







# 악을 막아주는 방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경**륜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파고 드는 악의 영향력을 조심하도록 경고하라고 예언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말일에 우리가 받고 있는 크나 큰 축복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적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어 줍니다. …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들이 오늘날의 악의 가르침, 기만, 악마의 술책에 대항하도록 강하게 보호해 줍니다.”(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40쪽 참조)

사탄은 전세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후, 모든 의로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지의 아비”(니파이서서 2:18, 이더서 8:25)요 모든 죄의 “근원” 또는 “주인”(힐라맨서 6:30, 모사이야서 4:14)입니다. 사탄이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들이 자신의 불행을 함께 겪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몬경은 우리들에게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지배하는 힘을 얻는 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열거한 사항은 사탄의 술책 몇 가지와 물몬경을 통해서 사탄의 술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 사탄의 술책

### 세상의 지혜를 따름

사탄은 옛날에 인간에게 준 “명백하고도 귀중한”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오늘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족”(니파이일서 13:29)하게 하였습니다. 물몬경과 기타 현대의 경전은 이처럼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간교한 꾀”가 노리는 것은 사람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학식을 배울 때, 하나님의 계시나 예언자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시렘은 이런 방식으로 야곱의 시

형제이며 예언자였던 니파이에게 반항을 한 레이맨과 레뮤엘처럼, 오늘날 주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중들의 결정과 지시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대에 니파이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야곱서 7:1, 23 참조)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 중에는 능숙한 말솜씨와 알팍한 학식으로 주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종들의 결정과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여 교회 회원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의 교리를 수정하여야 한다거나 도덕의 표준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은 일부 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성령의 빛으로 밝혀진 경전에서 말씀을 찾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비활동 회원이 되고, 심지어 배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속임수를 이용하여 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니파이서 15:20) 레이먼과 레뮤엘로부터 노아 왕과 개다이엔톤 강도에 이르기까지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을 전도한 사례를 물론경의 여기 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음악, 영화, 결혼, 복장의 표준, 기타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을 전도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겸손하며, 또는 도덕을 함양시키는 가치관은 조롱을 받거나 천박한 대접을 받기가 일쑤이고, 반면에 타락하거나 품위가 없는 가치관은 소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 노여움과 분쟁

악마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합니다.(니파이서 28:20) 예를 들면, 레이먼 백성 가운데 사악한 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증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앨마서 24:1~2, 19~22, 30; 25:1 참조)

오늘날 점점 사악해져가는 세상은 악을 선이라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과 원칙에 대해 성을 내고 분개합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었으며 현재 명예 총관리 역원인 윌리엄 그랜트 벵거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음 및 포르노에 탐닉하는 등] 이러한 악행을 행함은 그것이 그리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행동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41쪽)

분쟁은 성을 내는 한 방식으로 지극히 위협스러운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니파이삼서 11:29)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웃끼리 다투게 됩니다. 다투는 정신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분쟁의 불꽃을 일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 죄에서 행복을 찾음

오늘날 사탄은 죄를 짓는 가운데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홀립니다. 레이먼인인 사무엘은 니파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며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어 마침내 영원토록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의 멸망은 분명하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평생을 두고 얻지 못할 것을 구하였음이고,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여 행복을 구하였음이라.”(힐라맨서 13:38)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광고, 영화 및 서적은 악을 행복의 근원이라고 묘사합니다. 술, 마약 및 불신앙을 즉석에서 쾌락과 만족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고통, 슬픔 및 괴로움이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묘사한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 악에 대한 무지

사탄은 행복의 개념을 왜곡시킴과 동시에 악마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헛소문을 냅니다.(니파이서 28:22 참조)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마가 없다는 생각으로 방심하게





그림: 어놀드 프리이버그, 노아 왕 앞에 선 아비어다이

사악한 세상은 악을 선이라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과 원칙에 대해 성을 내고 분개한다. 물몬경의 예언자 아비어다이는 그 당시 악마의 영향력에 대항하다가 자신의 간증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고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악마의 개념은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 공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지어낸 가공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수용한다는 것은 권투 시합장에 올라가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얻어 맞으면서도 자신을 상대할 선수가 없다고 자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영적인 불감증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잊거나 그만두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미 심각한 범법을 저질렀으니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니파이서 32:8 참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병, 즉 불감증은 함정의 하나로써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이야말로 금세기를 위협하는 위협스런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7년 10월 62쪽)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악을 선택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승영을 포기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합리화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니파이서 28:8) 합리화는 흔히 자기들이 짓는 작은 죄를 변명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음악은 진짜 저질 음악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점원이 실수로 제 값







보다 적게 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요즘 영화치고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게 어딤어.”

악마는 많은 사람들의 목을 “삼베 끈으로 묶어 끌고가 필경은 단단한 줄로 영원토록 결박할 것”이라고 니파이는 기록하였습니다.(니파이이서 26:22) 삼베 끈은 아마에서 뽑은 부드럽고 연한 색깔의 섬유로 만든 것입니다. 가닥 하나 하나는 연하고 가늘어 쉽게 끊어지지만, 가닥을 모아 끈으로 만들면, 촉감은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하고 질깁니다. “죄를 조금 짓는 것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려 든다면, 우리는 부지 불식간에 은근한 방법으로 사탄에게 끌려가 필경은 사탄의 “단단한 끈”으로 결박 당할 것입니다.

## 헛되고 세속적인 것들

교만, 권세 및 부 때문에 의로움에서 멀어져 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엘마 이세의 시대에 살았던 교회 회원들은 부와 헛된 것을 두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회원들은 서로 멸시하며 그들이 뜻하고 좋아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엘마서 4:6~8 참조)

오늘날의 사회에서 명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만과 물질 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목표를 버리고 지위와 재물과 권세를 택합니다. 여러 해를 망명 생활로 보낸 러시아의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러시아 사람들이 공산 주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안, 서방 세계 사람들은 물질 주의에 탐닉했다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위한 이상적인 모델로 여러분의 사회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조각이 난 세상* (1978), 33쪽;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한 졸업

니파이 백성의 대장인 모로나이처럼 우리가 자유로이 인생 항로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앙의 “의지가 강한” 그는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종교를 지키기 위해 백성을 규합하였다.

식 연설에서 발췌, 1978년 6월 8일)

사탄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간음이나 살인의 죄를 범하거나 은행을 털도록 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수고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 사탄의 영향력을 극복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소개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중국에 가서 사탄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돕지 않습니다.(엘마서 30:60 참조) 사탄은 커단란 상을 약속하지만, 우리를 슬픔과 불행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악의 창조자인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기뻐서 웃습니다.(니파이삼서 9:2 모세서 7:26 참조)

■우리가 속아서 세속적인 안일을 좇게 되었다면,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리하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오 너희가 깊은 잠 곧 지옥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의의 갑옷을 두르라.”(니파이이서 1:13, 23)

매리는 지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세의 종말이 오면, 사탄은 미친 듯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속이고 파멸시키려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권고에 순종하는 것이 창세 이후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역사적인 대회가 막을 내리다”에서 인용, *처치 뉴스*, 1975년 6월 5일자, 10쪽)

의의 갑옷을 입으려면 영적인 일을 말로만 해서는 안되며, 우리 생활에서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물론경의 곳곳에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깨어 쉬



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엘마서 13:28, 15:17, 34:39; 니파이삼서 18:18 참조) 깨어 있는 행위는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군 부대에서 보초를 서고 경계 태세를 갖추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지도에는 우리의 취약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그 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 태세가 허술하다는 것이 들어나는 그 시점이 사탄이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 개시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복음의 권세,”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9년 11월호, 737쪽)

우리의 힘만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전세 시절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속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의의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말씀”, 데서렛 뉴스 위클리, 1864년 12월 28일, 98쪽)

■악의 영향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꼭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현을 통해서 보게 된 쇠막대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레이먼과 레뮤엘로부터 질문을 받은 니파이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진대 멸망 당하지 아니하며,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 같은 창도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눈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15:24)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경전의 원리를 이해하여 일상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 행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레이먼인인 사무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간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너희는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니 보라 너희는 자유로와 임의로 행

함이 허가되었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며, 또한 너희를 자유로 행하도록 하셨느니라.”(힐라만서 14:30)

“사탄때문이야.”라든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을 두고 푸념과 변명을 늘어놓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마를 허락하지 않는 한, 악마는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70쪽)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의롭게 살려는 의지를 가질 때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경을 찾아보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아서 5:2, 엘마서 19:33 참조)

물론경에서 평생 동안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마서 4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구절에 소개된 모로나이의 자질을 보기로 합시다.

“모로나이는 [1]상하고 의지가 굳으며 [2]완전한 이해심을 갖춘 자라, [3]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즐기지 아니하였고, [4]나라와 동포가 속박과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일을 기쁘게 아는 자였으며, [5]마음으로 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6]백성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자였고, [7]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돈독하여”

물몬은 모로나이의 자질에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 모든 사람이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모든 권세가 영원토록 흔들릴 것이요, 악마가 결단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리라.”(엘마서 48:17)

이상으로 열거한 자질을 터득하고 더욱 함양시킨다면 악마의 영향력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자신과 자기 백성의 일상 생활에서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 이끌었습니다. 물론경은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악마를 이겨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



# 인내로 경주함

“인내로써... 경주하며... 믿음의 주... 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 2)

**인**내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베냐민 왕은 인내를 성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꼽았다. 그리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더욱 훌륭하고 영원히 큰 영광”(교리와 성약 63:66)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데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 즉, 인내심이 없다면 인생에 필요한 교훈을, 특히 역경에서 오는 교훈을 배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려는 것은 더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흔히 조금씩 한다. 우리는 옳은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한다. 일상적인 허드렛일, 가사, 심지어 봉사까지도 서둘러 하기 쉽다.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저녁 취침 시간 뽀뽀를 효율적으로 해치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줄을 서게 해요.”

그러나 인생은 서둘러 경험하기에는 너무도 값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에 있어서 느긋한 마음이 없으면 배울 것이 적기 마련입니다. 적게 듣고 적게 보고 적게 느끼기 때문이지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것은 통상 더 적게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앤사인, 1980년 10월호, 29쪽)

더욱 심각한 것은, 조금하게 굴면 특히 역경에 처했을 때 조금하게 굴면, 우리의 영성의 허약함이 더욱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견디어내는 시련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환란을 당할 때, 참을성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만다.

## 인내의 열쇠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생활을 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을 망각하곤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과 주님을 믿는 신앙이다.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친다. “인내는 우리의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막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는 것(성취되는 것)을 경이와 경외감을 갖고 기꺼이 지켜 보는 것입니다.”(앤사인, 1980년 10월호, 28~29쪽)



실비아 로젠 자매가 신앙을 바탕으로 인내의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유타 주에 사는 그녀는 네 명의 자녀를 둔 젊은 미망인인데, 자녀들 중 한 아이가 심한 발육 부진 현상을 보이는 자폐증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비아 자매는 이미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치유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실비아 자매는 몇 가지의 활동을 개시했는데, 특히 최우선적인 관심사인 가족을 돌보는 것과 자신의 암 치료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지금도 실비아 자매는 생의 도전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활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이사야 40:31) 아름다운 영에 의해 힘을 얻고 있다. 그녀는 건강이 허락할 때에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도 하고 위로 받을 필요가 있는 이웃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타인들에게 주면 줄수록 그녀의 용모는 더욱더 평화스러워 보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신앙과 인내가 모두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생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실비아 로젠 자매는 이사야의 다음 약속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이사야 40:31)

•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과업을 우리는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가?

• 인내의 기술을 익히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





# 기적 같은 개종

저메인 에밀리 오펜트래리-게이

**내**가 열 다섯 살이었던 1938년 9월, 나는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 길리에 살고 있었다. 길리 마을은 스위스의 바우드 주에 소재하며, 제네바와 로잔느 사이에 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두 명의 신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나의 어머니의 이름은 즈느비에브 에밀리 폴린 게이였으며, 두 명의 신사는 한 분은 캐나다 사람이었고, 다른 한 분은 미국 사람이었다.) 그 두 신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었으며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선교사들에게 프랑스어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선교사들을 도와주니 어머니는 매우 기쁘시다고 말씀했다. 그 후 나는 선교사들을 몇 차례 만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젊은 선교사들이 니온 마을을 떠났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어머니와 나는 그 선교사들이 어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 했다.

나는 성장하여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프랑스 중부 지방으로 이사했다. 1990년, 우리는 푸이 드 돔에 소재하는 보망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당시 어느 날 나는 우연하게도 시사 잡지 그 뽀앵에 실린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의 표제는 “아담과 이브 이후의 인류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다”였다. 그 기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죽은 자를 위한 계보 사업 및 침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를 반세기 이상의 과거로 되돌려 놓는 커다란 충격을 맞보았다. 그 기사를 읽고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강박 관념 때문인 듯 싶었다. 나는 언제나 신앙심 많으시고 다른 중

교에 대해 관대하셨던, 1978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1937년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그 기사에 언급되어 있던 유타 주 계보 협회 수집 담당 책임자인 패트릭 카핀 씨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의 성명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계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문의하면서 나의 부모님의 출생 및 사망 일자와 결혼 일자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그 밖에 캐나다 앨버타주 카드스톤에 거주하는 브리검 와이 카드 장로와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하는 제이 리이즈 장로의 성명과 주소도 알려 주었다. 그것은 이미 52년 전 그 분들이 나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사진의 뒷면에 그 장로들이 써 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3주 후, 나는 카드 장로에게서 나의 부모를 위해 그의 가족들이 대리인으로 성전 의식을 받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의 편지를 읽는 동안 나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하지만 그의 말이 나의 부모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기까지는 며칠 걸렸다. 1990년 6월 28일, 나의 부모님은 조단 리버 성전에서 대리인이 되어 준 카드 장로 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사위를 통하여 침례 의식과 엔다우먼트 의식과 인봉 의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나의

왼쪽: 22세 때의 저메인 에밀리 오펜트래리 게이 자매(우측)와 그녀의 어머니 즈느비에브 에밀리 폴린 게이(75세) 오른쪽: 저메인 자매는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50년 후 그녀의 생애에 그같은 엄청난 영향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님은 성전 축복을 받으신 것이다.

한편 카핀 형제는 그 분대로 제네바에 있는 선교 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5월에 나는 복음 선교사인 비숍 장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클러몬트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말일성도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 선교사들의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 곳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예배당에서 만났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주 일요일 나는 예배당 집회 모임에 참석하였고, 유타 주 프로보에서 온 부부 선교사 베어 형제와 베어 자매에게서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약속했다. 토론을 마친 후 나는 1990년 7월 24일 침례를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된 후 스위스 성전에 참석하고 내가 다니는 지부의 가족 역사 사업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나의 기쁨은 날로 더해 갔다. 그러다가 1994년 9월,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는 도중 나는 카드 장로 부부를 만났다. 이 부

부는 앨버타 성전에서 부모님에게의 나의 인봉을 위해 나의 부모님 대리인으로 봉사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부모님 가족들의 영원한 결합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나를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께 결합시켜 줄 교회를 여러 해 동안 찾았려고 애써 왔었다. 그리하여 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 축복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 □





# 날이 새기 전에

리토 바네즈 레가스피

그 날 저녁 선교사 아파트에 도착하자 나의 동반자는 나를 남겨 놓고 문을 광 닫고 먼저 들어갔다. 그가 들어가고 난 후, 나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느라 언성이 커지고 거칠어졌다. 그의 주장은 필리핀인인 내가 미국인인 자기에 대해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더 화가 날 뿐이었다. 그는 잔뜩 화난 채로 주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침묵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분노는 더 맹렬히 타올랐다.

나는 방 구석으로 가 앉았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주그리고 앉았다. 나는 영영 울고 싶기도 하고, 또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싶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마음이 착잡하고 두려웠다. 마치 헤드라이트 없이 꼬불꼬불한 어두운 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는 것 같았다. 그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복음 토론 가르치기, 어린이들과의 활동, 구도자들과의 대화—은 일종의 몸짓 게임같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에 관해 복음 토론을 가르쳤을 때는 나는 내심 고통스러웠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 사이에 중요의 장벽을 쌓고 있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깜깜한 방 안에서 나는 스테이크장님이 나를 복음 선교사로 성별해 주셨을 때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는 내가 선교 사업하는 동안 여러 차례 시련을 겪을 것이며 그 시련 가운데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으리라고 말씀했었다. 그는 또한 내가 당면하게 될 두 가지의 "골리앗"—내 자신의 약점과 동반자와의 불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형제의 내부의 힘이 형제 앞에 있

는 장애물의 힘보다 더 강하리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나의 골리앗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받아 다른 동반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동반자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마치 거센 태풍 속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도드리려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만큼 합당치 못하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몸부림을 쳤다.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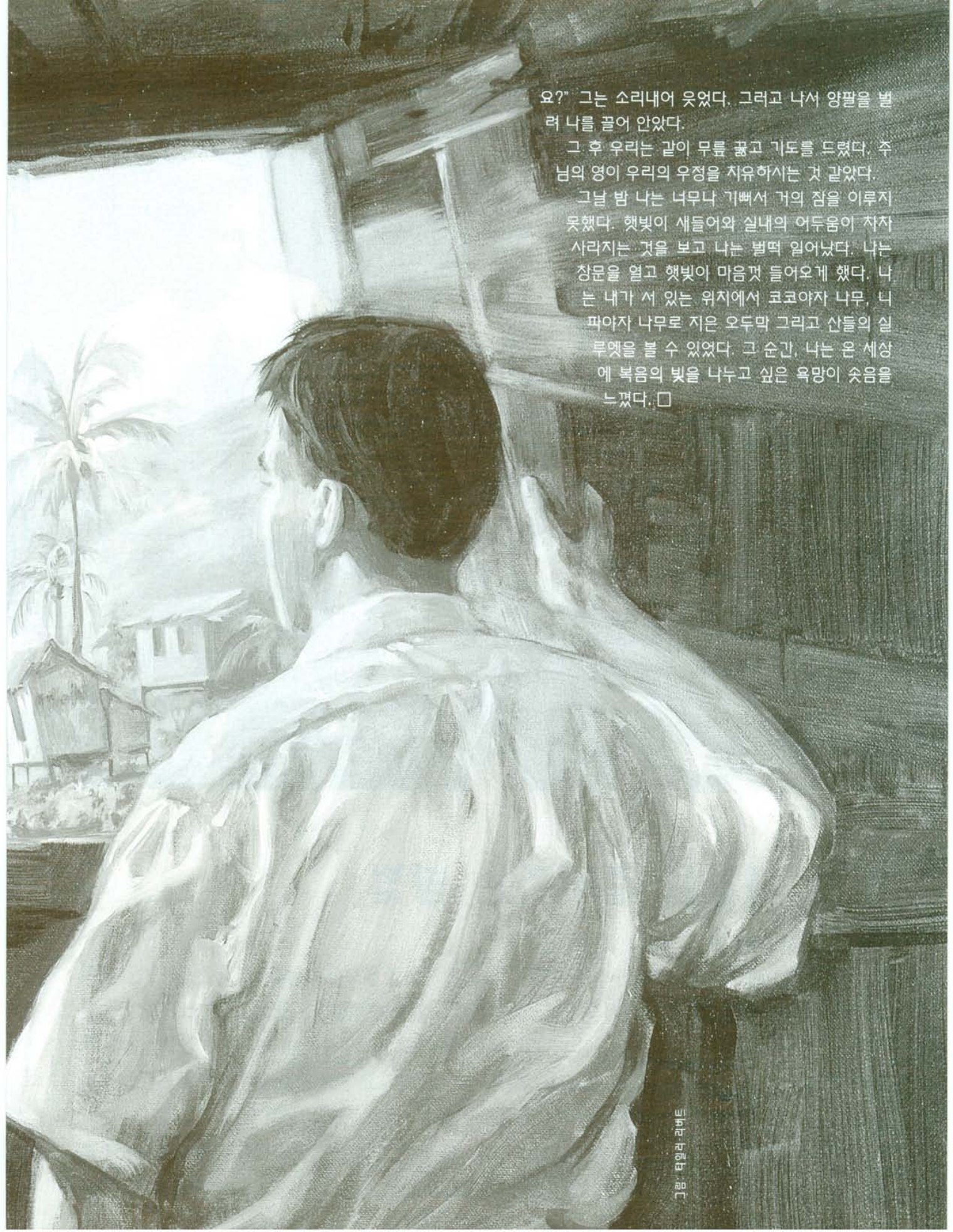
나는 정적 속에 울면서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있다가 마침 다림판에 있는 경전이 눈에 띄었다. 나는 경전을 펴 대강 훑어 보았다. 나의 눈길은 이 성구에 머물렀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 24) 나는 내가 찾고 있는 해답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작고 조용한 소리가 나에게 동반자와 화해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또 나와 동반자 사이에 세워진 마음의 장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시켜 주실 것을 알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동반자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그러자 그가 나보다 먼저 말을 꺼내 나는 놀랐다. "장로님 미안해요. 저의 잘못이었어요."

나는 나대로 의자를 잡고 그의 옆에 앉아 이렇게 우겼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우리들의 우정을 깨서 이 성스런 사업을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것을 장로님은 아세요? 지금은 취침 시간이 지난 것도 알고 계세





요?”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나서 양팔을 벌려 나를 끌어 안았다.

그 후 우리는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우정을 치유하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너무나 기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햇빛이 새들어와 실내의 어두움이 차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창문을 열고 햇빛이 마음껏 들어오게 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코코야자 나무, 니파야자 나무로 지은 오두막 그리고 산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솟음을 느꼈다. □





사진 촬영: 윌드 맨더슨

##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

케이스 넬과 아론 랜덜 불러

**여**러분은 종종 귀환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가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익히 들어 보았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수행한다면 진정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관건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에 무엇을 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에 무엇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잘 준비해 왔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 겪게 될 그 무엇보다도 값진 체험을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영적인 준비

■ 좋은 본보기를 찾는다. 여러분을 독려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교사나 부모, 친구, 귀환 선교사, 신권 지도자, 고문 및 여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함께 보낸다.

■ 경전을 사랑하기를 배운다. 흥미를 유발시키고 영감을 주는 경전 연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 어떻게 영을 느낄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한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영이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한다. 언제나 영의 일깨움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 간증을 나눈다.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다. 간증을 나눌수록 더욱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교리적인 지식뿐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필요로 하는 자제심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단지 믿지만 말고 행하도록 한다. 회생과 봉사를 할 때, '십리를 더 동행함'의 원리를 따르는 습관을 들인다. 이것이 선교 사업의 핵심이 되는 원리이다.

## 사회적인 준비

■ 예의 범절에 신경을 쓴다. 품격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냥한 태도와 훌륭한 식사 예절 그리고 고상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의를 집중하여 사람들이 지닌 장점을 보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여러분과 틀리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원리를 지켜 나갈 때 여러분의 동반자나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 대화하는 기술을 배운다. 평이하고 진지한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솔직함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경청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 이끄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은 회원, 선교사, 구도자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따르기를 배운다. 지도자들의 인도에 감사한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탁월하게 잘 따른다면, 여러분이 그러

한 가르침을 주는 시기가 왔을 때 보다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 훌륭한 친구를 찾는다. 여러분을 고양시켜 줄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며, 또한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것도 배우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민감하도록 한다.

■ 사랑하기를 배운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박애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내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도록 한다. 박애는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성품이 될 것이다.





## 재정적인 준비

■ 일자리를 갖는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드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뜻깊은 것이 될 것이다. 직업을 통해 여러분은 훌륭한 노동 습관을 익힐 수 있다.

■ 여러분이 가진 일부 물품들을 판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개인 소유물을 팔아 선교 사업을 위한 재정을 충당해 왔다. 여러분이 가진 물품 중에 값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저축한다. 아직도 선교 기금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즉시 새 계정을 개설한다.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이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도록 한다.

■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운다. 선교 사업을 하는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매 달 일정액을 받을 것이다. 결코 그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아직 예산에 따라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예산 세우기를 배우고, 한도 경비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단련이 되어야 한다.

■ 지금부터 미리 사두고 나중에 사용한다. 점점 선교사로 봉사할 나이가 가까워 오면, 미리 선교 사업에 필요한 경전이나 기타 물품들을 구입해 둔다. 미리 사둔다면, 후에 다가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신체적인 준비

■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한다!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신체 단련과 고된 선교 사업의 수행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강한 체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러분이 강건한 체력을 지니고 있다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른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힘겨운 선교 봉사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과일, 야채 및 건강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도록 한다.

■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다. 철저한 신체 검사를 사전에 받도록 한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해결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의사가 면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이발을 한다. 손질하기에 간편하면서도 보기 좋은 머리 모양을 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머리 손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 옷을 손질하는 법을 배운다. 옷을 빨래하고 수선하고 얼룩을 빼는 방법 등을 배운다.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선교 사업이 순조롭게 풀려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즐겁게 준비하라. 덧붙여 말하건데,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





회개는  
더러움을 깨끗히 씻어주는  
**강한 비누입니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그러나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분을 좋게 합니다.(이사야 1:18 참조)



# 가 나





# 신앙의 가족

돈 엘 시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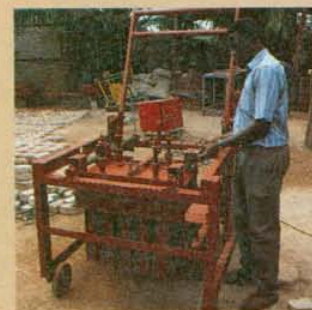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아이작 코조 보트웨의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고 멧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들을 거실에 남겨 두고 아이들 방에 가서 역겨운 파이프 담배를 피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날, 그는 선교사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로 하였으





왼쪽, 위에서 아래로: 코포리두아 제2지부의 필립 오헤네; 꽃이 만발한 공장; 에메리아 아하디지, 가나 아크라 스테이크 조동협회 회장단 제1보좌; 크웨크 아노가 이 벽돌 제작 기계를 설계하였다. 오른쪽: 가나 아크라 스테이크 부장인 엠마뉴엘 오헤네-오파레 및 와드 조동협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의 아내 모니카  
앞 쪽: 테마 와드의 복음 교리반





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역겨운 파이프 담배"를 끊고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가르쳤던 선교사인 마크 오우수는 아이작 보트웨가 아이들을 시켜서 파이프와 담배와 커피를 모아 불을 지른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아이작과 그의 부인인 프란시스 그리고 침례 받을 나이가 된 자녀들은 1987년에 함께 교회를 찾았다. 아이작은 이제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의 타코라디 워드 감독직을 맡고 있다. 가족들 모두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마크 오우수도 그렇다. 그는 선교사 부름을 마치고 교사직과 여러 가지 지도자 부름에서 봉사하였다.

보트웨 가족과 오우수 가족이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 겪은 과정은 교회가 정식으로 가나에 들어온 후 18년 동안 가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과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 신앙 생활의 시작

요셉 윌리엄 빌리 존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가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는 회원이었다.

그는 1964년에 친구 한 명에게서 유럽에서 보내온 물론경과 교회 소개 소책자 몇 권을 받았다.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실린 소책자를 읽은 그는 그 책자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그는 물론경을 읽고, 그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본부에 편지를 보내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파송될 때까지 경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라고 격려를 보내왔다.

빌리 존슨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14년 간을 견뎌 왔다. 그는 회중을 모아 교회 서적을 통해서 배운 복음을 가르쳤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회의 관행에 따라 성도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이따금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때때로 시현과 꿈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꿈에 나타나서 격려를 해준 것을 계기로 아들의 이름을 브리감 영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존슨 형제는 꿈에서 이미 돌아가신 친척들로부터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은 이후로 죽

은 자를 위한 구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존슨 형제는 자신이 개척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개척자들이 미국의 서부에 마음 놓고 편하게 예배를 볼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던 이야기를 읽고 그는 가나에서도 이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합당한 모든 남자 회원들에게 신권을 주어야 한다는 계시가 주어진 뒤, 1978년에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도착하였을 때, 그 동안 그가 준비시켰던 수백 명의 가나인들은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의 축복사직을 맡고 있는 존슨 형제는 그 동안 온갖 역경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있다. "대회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사업에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 진리의 전파

가나의 교회에는 개척자 회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침례를 받고 귀국하여 새로 발견한 진리를 가족 및 친구에게 전해 준 사람들도 있었다.

모니카 오헤네-오파레는 1979년에 뉴욕에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를 하던 중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귀국 직후 결혼을 하여 남편인 엠마뉴엘을 개종시켰다. 그 후 두 사람은 각기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았다. 현재 그녀는 와드의 초등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남편은 가나 아크라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 생활을 이끄는 지도자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오헤네-오파레 자매는 다섯 자녀가 자신이 누리지 못한 기회, 즉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1세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복음은 그들의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자녀들이 이제는 힘든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차원 높은 표준을 갖게 된 데 대해 그녀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엠마뉴엘 아부 키시가 그의 대가족과 함께 체험한 일들은 교회가 가나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한 사



람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촉매제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말일성도 선교사가 그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엠마뉴엘은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아내인 베네딕타 엘리자베스는 선교사의 병자 축복으로 그 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과 우울증으로부터 깨끗이 나왔다. 엠마뉴엘은 선교사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해 번민했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고 1979년에 침례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가나에 돌아오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 엠마뉴엘 키시 형제는 수년간 지역 대표를 맡았다가 지금은 가나 아크라 선교부장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가족에 뿌린 씨가 이런 결실을 거두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엠마뉴엘의 동생인 스티븐 아부(동생의 성씨가 다른 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가나의 풍습 때문이다.)가 아크라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동생에게 복음을 소개하였다. 스티븐은 침례를 받고 나서 벽지에 있는 고향 마을, 아보모수로 돌아와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가족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쳤다. 마침내 마을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을 때는,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아보모수 지방부가 조직되었다. 지금은 회원 수가 600명이 넘는다. 마을에 두 개의 지부가 생기자, 말일성도의 수는 전체 주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도로에서 2마일 떨어진 샌코베네세라는 마을에는 지부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다.

## 보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영위함

복음을 통해서 가나인들이 혜택을 본 중요한 분야는 가족 관계이다. 가나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들은 결혼 생활에서 이 끌기 보다는 군림을 하며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말일성도의 남녀 대부분은 복음의 원리에 의한 결혼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고 있다.

몇 해 전에 필립 하하그베는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업무로 인해 술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몹시 괴로웠다. 이들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살았다. 자매가 선교사를

만났을 당시, 이 부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필립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모두가 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아내와 딸과 영원히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꿈을 통해 받고 나서 그는 침례를 받았다.

1992년에 가나에 돌아온 후,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교회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세 명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현재 아크라 스테이크 크리스티안스 보르그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하하그베 지부장은 복음 덕분에 그의 결혼 생활이 온전케 되고 그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교회 덕분에 바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대다수 회원들은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코포리두아 지방부 코포리두아 제1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아그네스 아드제이는 지갑에서 작게 접힌 종이를 꺼내며 경건하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성전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방문하려면 여러 해를 기다려야 했지만, 성전을 방문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다수의 가나인들은 여행 비용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있다. 케이프 코스트 가나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서기인 아토 앰피이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전에서 저와 가족이 인봉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단에 무릎을 꿇고 인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올라 대학교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도 아쿠아 아프리에 카쿠 자매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은 몇 안되는 가나인 중 한 사람이다. 인봉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녀는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인봉은 혼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오해가 있다면,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인봉에 대해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부부가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에 강한 가정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녀는 말한다.







위 쪽, 좌로부터: 조나단 코란탕, 테사노 와드 감독단 제1보좌; 코포리두아 부근의 경치; 에드먼드 프렘퐁, 가나 아크라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아래 쪽: 가나 아보모스 지방부장인 스티븐 아페아닝 아부 및 그의 아내 마가레트







왼쪽: 테마 와드의 조동협회  
 어린이 및 교사  
 오른쪽 위로부터: 존 솔레 부카리,  
 코포리두아 제2지부; 세실리아  
 오두로,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



가정 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발전한다. 가나 사람들은 이웃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 가족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가나 사람들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한다.

## 시련의 시기

그러나 가나에서 교회의 장래가 암울하게 보이던 때가 있었다. 가나 정부가 “일체의 대중 예배, 전도 및 기타 교회 활동을 금했던 일”을 먼저 설명해야만 이 나라의 말일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989년 6월에 정부는 교회의 대중 예배, 전도 및 기타 활동을 일체 금하였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교회에 대한 헛소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회원들은 믿고 있다. 아보모수의 문민 정부와 군인들은 스티븐 아부 지방부장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서 교회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을 목록에 기록한 다음 열쇠를 압수하였다. 회원들은 교회 재산과 마을 밖에 있는 교회 농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받았다. 가나의 여타 지방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보는 예배 마저 금할 수는 없었다. 회원들은 가족 단위로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다. 아부 지방부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잡혀 가니까요.” 아부 지방부장은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한 후 감옥 신세를 지고 처벌을 받았다. 일부 회원들은 지주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권 지도자들은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인과 가정을 은밀히 방문하면서 목자 역할을 하였다.

1990년 11월에 교회 회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표시하고 정부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가나의 교회 회원들은 기쁨에 넘쳐 가정에서 가정으로 소식을 전하였다. 가나에서 봉사하고 있던 가나 출신의 젊은 선교사들은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명예롭게 해임되었으나, 금지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결혼을 하였거나 국외로 나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선교사 임무를 마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다시 임지로 돌아왔다.

다수의 회원들은 그 시절을 오히려 신앙을 강하게 해주고 새로운 영적인 발전을 하게 된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2명의 선교부장 보좌를 지낸 바 있는 존 부이는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선량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참된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서 말일성도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공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중 다수가 침례를 받았다.

지금도 “교회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아 형제는 말한다. 그런 교회가 가정에 힘을 북돋아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즉 비도덕 및 십대의 임신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4년에 가나의 제이 제이 로울링즈 대통령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아프리카 지역 회장이었던 칠십인의 제이 리처드 클라크 장로를 영접한 뒤, 회원들은 이것을 가나 사람들의 생활에서 교회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치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계기로 여타 종교를 믿는 시민들처럼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파하게 되었다.

## 일상 생활의 과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가나 회원들의 전도가 늘 순탄하다는 것은 아니다. 가나의 여타 국민들처럼 교회 회원들도 경제 및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나는 발전의 잠재력이 큰 나라이지만,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가 별로 없지만, 중소기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가나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아크라의 말일성도 사업가인 크웨크 아노는 몸짓으로 그의 제조업 회사 금속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제나 사촌들도 모두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노 형제는 10명의 직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1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말한다.

기계 기술자인 아노 형제는 자신의 공장에서 간단하고 견고한 블럭과 벽돌을 찍는 기계를 설계하였다. 기계 한 대를 만들 때마다 네 사람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아노 형제는 말한다. 그의 사업 덕분에 52명의 직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프 코스트 제1와드의 홀브르크 크리스찬 맥아더 감독은 자기 와드 회원 중 80%가 직업이 없다고 말한다. 남자 회원 중 30%가 직업이 없는데, 대부분이 직장에 다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다. 가나의 다른 지역에 있는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와드 회원들도 단결하여 건축 공사나 가나의 주요 작물인 카사바로 만든 식품 판매 등 여러 가지 협동 사업을 벌였다.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가나인들이 보여 준 집요한 인내심은 가나 말일성도의 신앙을 나타낸 것이라고 감독은 말한다. 감독은 회원들과 접견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문제를 알게 된다. "그러나 조금만 다독겨려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인들은 이와 같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다. 어느 날, 베아트리스 아손은 자신의 기업 투자를 위해 아프리카에 있는 은행에서 500만 가나 세디스(미화 약 4500달러에 해당함)를 인출하였다. 그녀가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 보고 있었다. 그날 밤, 갱단이 그녀의 집을 습격하여 총을 여러 발 쏘고 친척 한 명을 묶은 다음 다른 방에 아이들처럼 함께 가둬다. 갱단은 아손 자매에게 돈을 요구하고 가재 몇 가지를 훔쳐 갔다. 그러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나중에 경찰은 이 갱단이 다른 사건에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손 자매는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보호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

강도 사건을 당한 후 아손 자매는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업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건은 큰 시련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답니다." 그녀는 복음 속에서 인내하며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직업이 없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가나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코피 오파레는 결혼을 미루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20대 중반 및 20대 후반의 귀환 선교사들에게 충고한다.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결혼하십시오."

스물여섯 살인 코피의 나이는 가나의 신랑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연령에 속한다. 대부분의 젊은 회원 부부처럼 코피와 아내인 테레사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혼식을 하였다.

그는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풍습에 따라 술, 옷감을 주는 대신에 테레사를 위한 찬송가와 약혼 반지 등 예물을 주었다.

그 의식이 1994년 12월에 있었지만, 코피와 테레사는 1995년 말일성도 예배당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지 않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에 관한 한 처음부터 교회의 영향을 받고 싶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살림을 시작하고 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는 등 세부적인 준비를 하였다.

테레사는 제봉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일정한 수입을 꾸준히 벌었고, 코피는 다치는 대로 시간제 일을 해야 했다. 사정이 이처럼 힘들었지만, 그래도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테레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말일성도 남자 회원은 결혼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 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을 잇는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결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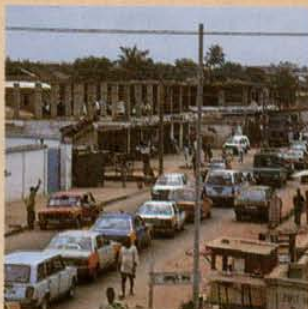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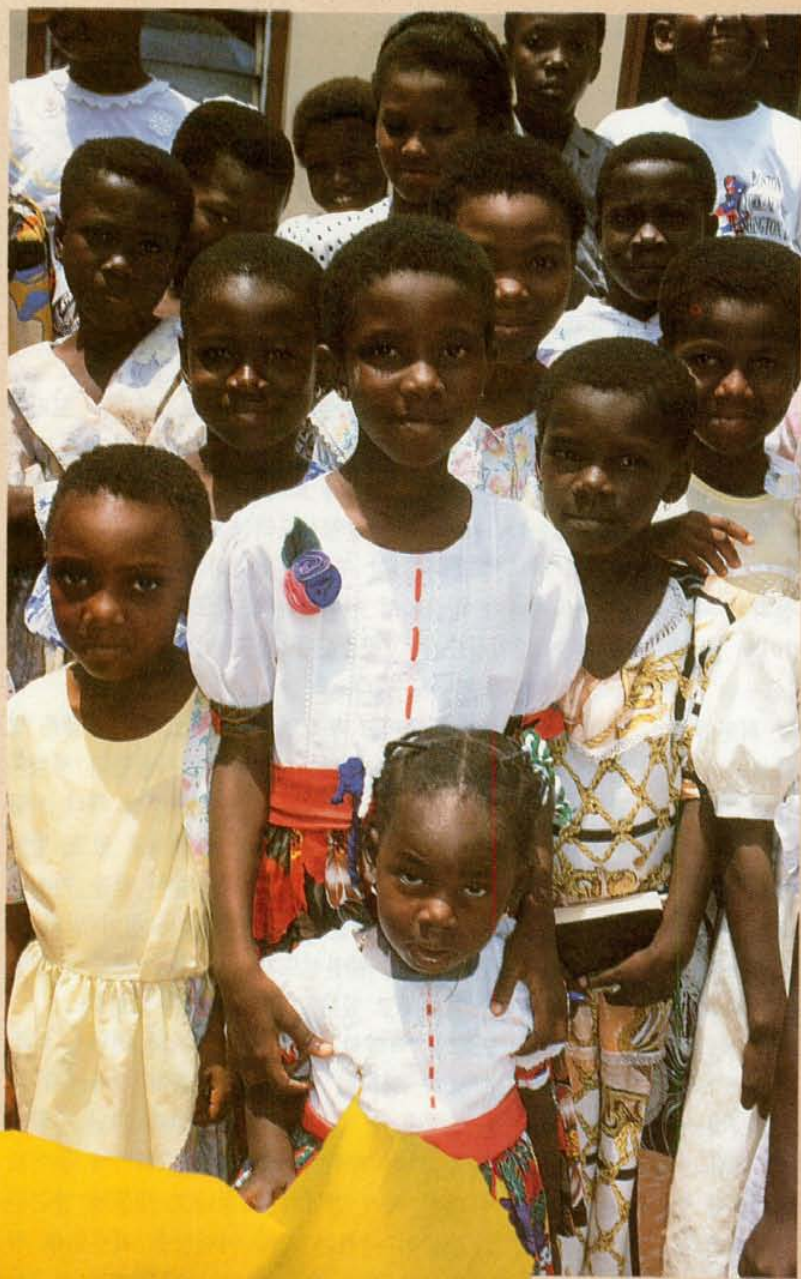
##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의 향상

글을 읽는 능력은 교회 회원이 극복해야 할 또 한 가지 과제이다. 가나는 영어를 정부와 기업의 공식 언어로 쓰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가나 국민들에게는 영어가 제2의 국어나 다름없다. 가정에서는 아프리카 토속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교육 혜택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은 영어와 경우에 따라 유럽어 및 여러 개의 토속어를 쓴다. 그러나 학교는 민간 단체(대부분 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수업료를 낼 돈이 없어서 일부 가나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숙련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교체하거나 경전을 읽을 수조차 없다.

이 같은 시정 때문에 전국의 스테이크와 와드, 지방부 및 지부에서 글을 가르치는 반을 운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아크라 스테이크의 청년 회장인 엘리스 삭키는 교회의 청소년 회원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 중에서 장차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청소년 회원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열의는 대단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그들이 글을 읽을





왼쪽: 타코라다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오른쪽, 위로부터: 새로 지은 병원 부지에서 찍은  
 엠마뉴엘과 베네딕타 엘리자베스 키시; 아크파크파  
 도로의 교통; 찰스 베사-시몬스 감독이 가족의  
 정원을 위해 회원들에게 배정된 밭의 작물을 살펴  
 있다; 도우 아쿠아 아프리카에 카푸, 올라 대학교 와드  
 상호부조회장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충고를 털어놓는다. “이들 중에는 학교 문턱을 밟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녀를 거쳐 가는 사람은 모두 상호 부조회로 월반하기 전에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인 세실리아 오두로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복음을 공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혼자서 글을 읽고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영어를 배워야 할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스스로 경전의 보배를 깨우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 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모범을 보였다. 아크라의 귀환 선교사인 로날드 아드제이 단소는 경전을 꾸준히 “공부” 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감독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아크라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을 맡고 있는 에드먼드 프레퐁은 복음을 통해서 그가 고민했던 신학 문제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의 가르침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성은 참된 것을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아칸 부족의 조상이 가르친 인생의 개념, 즉 사람은 영의 세계로 부터 와서 인생을 마치면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준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저의 조상이 해명하려 했던 점입니다.”

## 그릇된 인식의 극복

회원들은 교회에 대한 헛소문과 그릇된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가나인 중에 회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기독교도이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토속 종교를 믿고 있다. 기독교가 가나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런 저런 성경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규모가 작고 독립적인 교회가 가나에서 우후 죽순처럼 생겨났다. 가나의 이와같은 종교적 분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가나의 회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관이 교육의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같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말일성도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보다 용이했다. 모니카 오헤네 오파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말일성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 부모도 있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오파레 자매가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초등학교 노래를 듣고 말일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 놀라면서 반긴 경우도 있다.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부장인 케네스 코베나 안담은 말일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던 사람들의 생각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고 전한다. 이제 대부분의 가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고, 말일성도가 생활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말일성도 교회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일성도가 차원 높은 표준의 행동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안담 부장은 말한다.

말일성도 교회가 “백인의 교회”라는 과거의 비난도 차츰 차츰 사라지고 있다. 일찍이 말일성도 교회가 가나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 또 다른 인종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을 다시 착취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들어왔다는 헛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새롭게 발견한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나 사람들을 회유하여 침례 받지 못하도록 단념시킬 수는 없었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의 몸에서 은은히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 같은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말일성도가 착취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오늘날 가나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스테이크, 와드, 지방부 및 지부를 이끌고 있고, 각종 교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모임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지역의 회원들을 위한 모범 사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범의 효과

가나 회원들의 충실하고 성실한 모범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 부 우

현재 코포리두아 지부 서기로 봉사하고 있는 필립 오헤네는 자기의 말일성도 사장이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고 말한다. 사장의 행동을 통한 모범으로 인해 필립은 복음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그는 말한다.

존 술레부카리의 회교도인 부모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발전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은 존과 그의 형 그리고 누나 두 명이 말일성도이다. 그들의 부모는 복음 때문에 아이들이 달라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존은 말한다. 존의 누나 한 명과 형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고, 존은 코포리두아 지부의 청남 회장단 제2보좌직을 맡고 있다. 다음엔 자기가 복음 선교사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존은 군사 훈련에서부터 교직 과정 이수에 이르는 2년 간의 국가 봉사 의무를 마쳐야 한다.

이처럼 회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의 도전과 시험에 가까이 응하려는 자세를 배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말일성도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유한 기회를 갖게 된다고 아크라 테사노 와드의 감독단 제1보좌직을 맡고 있는 조나단 코란텡은 말한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지만, 이 생의 모든 시련을 거둬 가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시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은 코란텡 형제는 리하이가 범사에 서로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다. (니파이서서 2:11, 15 참조) “저의 앞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다행히도 말일성도는 도전을 이겨내는 데 최상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케이프 코스트의 카쿠 자매는 말한다. “여러분이 성령을 동반하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대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이 지상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단합, 사랑 등 모든 것이 같습니다.”라고 카쿠 자매는 말한다. 피부색이 달라도 “말일성도가 모일 때, 이런 차이는 일시에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같은 영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

케네스 코베나 안담,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부장 및 그의 아내 자네트





# 우 리 는 ...

더글러스 제이 버미른

**내**가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신권을 받고 집사로 성임되었으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로열 캐나다인 공군사관 학교 52 중대의 생도가 되었다. 군대에 적응하기란 참 생소하고 힘든 경험이었다. 공사에서 맞는 첫여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유난히도 기억에 생생하다. 신참 생도였던 나는 기초 훈련을 받았다. 친구들이 방과 후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에 나는 행군과 명령 복종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행군에 소질이 없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 하는 일이란 행군밖에 없는 듯했다. 태양이 맹렬하게 내리쬐었는데, 국방색 제복을 입은 우리에게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기절할 것만 같았다. 식어 빠진 음식,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하나도 군대 식당에서 나오지 않았다. 군대 생활은 여태까지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온 그런 삶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다.

모든 생도들은 병영에서의 첫토요일 밤 취침 시간 전에 막사 복도에 도열했다. 담당 공군 하사관이 들어왔을 때, 우





# 믿는 다

리 모두는 일제히 부동 자세를 취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아침 교회에 간다. 이 기지에는 단지 두가지 교회가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 내일 어디에 갈 것인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 알았나?”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생도 대원들이 일제히 한 소리로 “네, 하사관님!” 소리질러 대답했다. 그리고는 그 하사관이 막사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첫순간이 될 것만 같았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나는 침상에서 내려와 다시 기도를 드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매달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렵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까?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전히 걱정되었지만, 일이 잘 될거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막사 바깥에 도열해 있었다. 방수 재킷을 입은 그 하사관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 명령을 드디어 내렸다. "천주교도는 이 쪽에, 신교도는 저 쪽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을 때, 정열된 두 열 사이에는 나만 홀로 서 있었다.

그 공군 하사관은 나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디로 갈 건가?"

"하사관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일성도입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명령했다. "나를 따라와."

나는 그를 따라 군목의 막사로 들어갔다. 안에는, 여러 목사들이 일요일 모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사관이 문을 세게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비에 젖은 채로 들어가자 천주교 사제의 옷깃을 단 위장복을 입은 한 신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이 생도는 말일성도입니다."라고 통명스럽게 내뱉고는 그 하사관은 빙속으로 되돌아 나갔다.

그 사제는 나에게 앉을 것을 권유하고는, 또 다른 한 사제와 함께 그처럼 흥미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려고 의논했다. 그들은 마침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했다.

처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돌연히 마음이 맑아져, 나는 신앙개조를 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해서 외웠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개신교 목사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한 사제가 제안했다.

신교도 집회가 끝난 후, 그 목사가 막사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교회 모임이 어떠했다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익숙해 있는 것들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 당기며 물었다. "그 외에 말일성도들은 또 어떤 것들을 믿지?" 방에 함께 있던 생도들도 함께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 들었다. 나는 신이 나서 신앙개조를 모두 암송하였다. 내가 몰몬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지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듯했다.

나는 그날 밤 늦게 어머니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어 내가 처한 어려운 여건이 어떻게 선교 사업의 기회가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목사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려고한다고 몰몬경을 보내 주실 것을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한 주가 지나가고, 마침내 몰몬경이 도착했다. 몰몬경의 안 표지에다 내 간증을 적은 후에 어머니가 몰몬경과 동봉하여 보낸 신앙개조가 담긴 카드를 책갈피 속에 끼워 넣었다. 그 목사는 기쁘게 내 선물을 받아 주면서 읽을 것을 내게 약속했다.

몰몬경이 그 목사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알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신앙개조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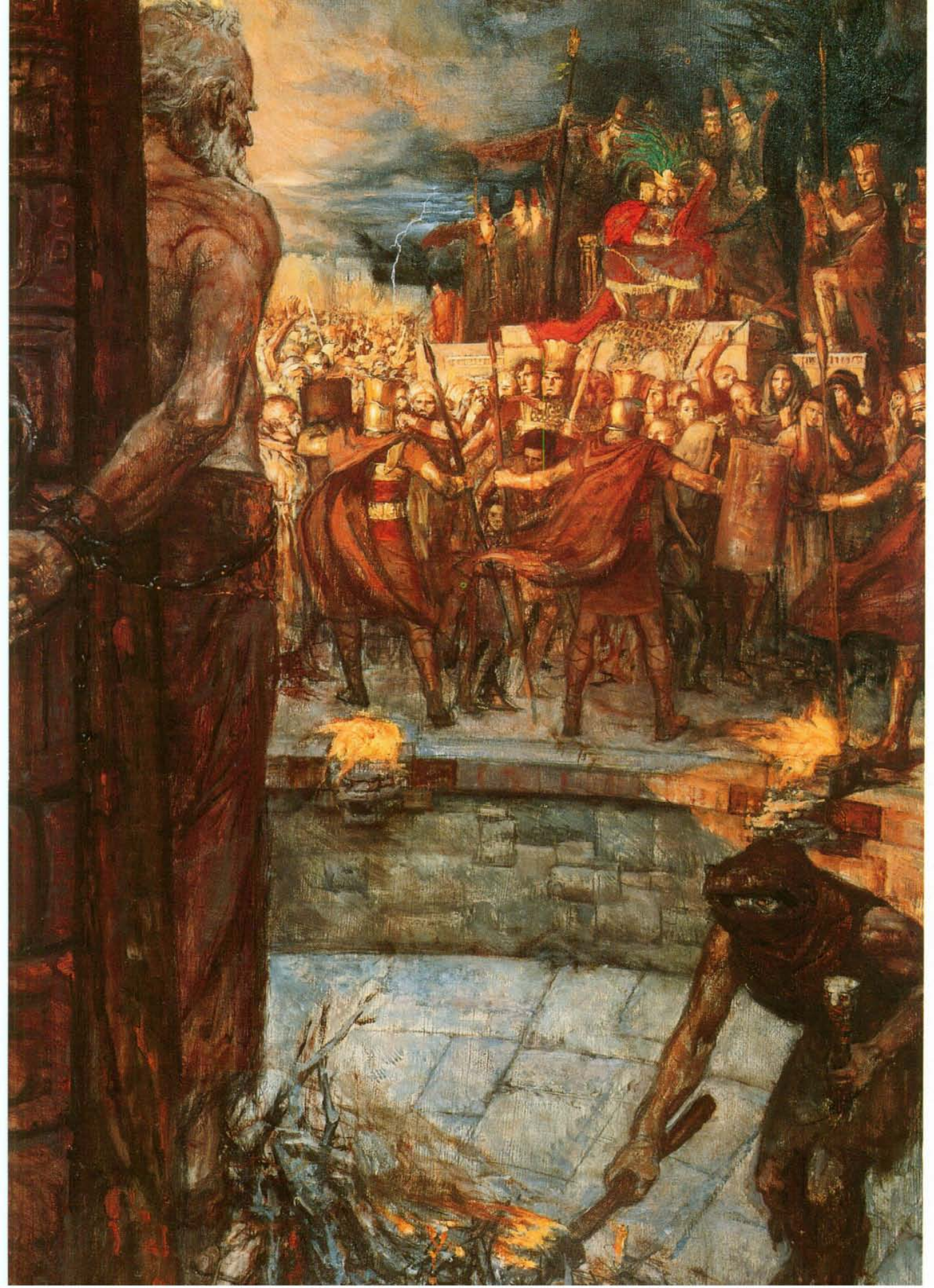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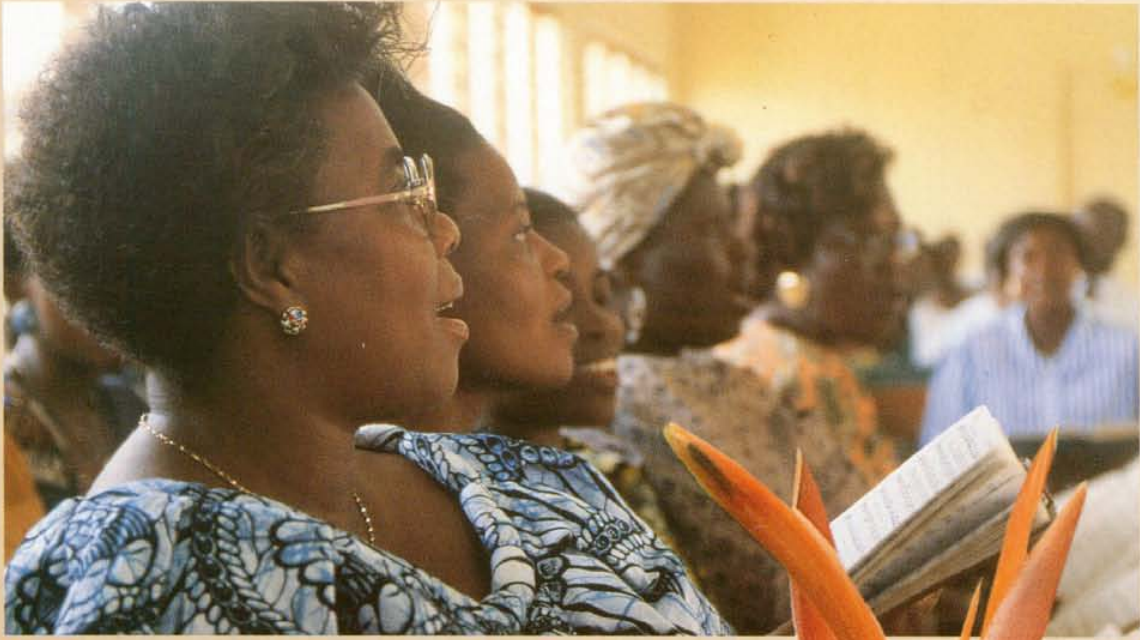


그림: 론 크로스비, 아비아다이가 그의 간증을 인종함

물론 그의 예언자 아비아다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감동적인 간증을 전한 후 시형을 인종 받았다. "저들이 아비아다이를 불에 붙여 결박하여 나무뿔에 불을 붙여 아비아다이의 실을 태워 죽이려 하니라..."





가 나의 많은  
말일성도들이  
발산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그들의  
친구와 이웃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음으로 인해  
형성된 인생의 도전에  
응하는 방법 때문에  
그들의 모범은  
두드러진다.  
("가나: 신앙의 가족",  
34쪽 참조)

